

01 교회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전 성도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힘차게 이뤄갈 2023년 교회 기도 제목 4가지.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기획특집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자!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성도들은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04 간증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깨우쳐 회개함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84호 2023년 1월 8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22년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진행된 ‘2022-2023 송구영신예배’가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전 세계 만민이 함께했다. 1부 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2부에는 전 성도 기도 제목을 위한 축복기도 후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찬양과 연주, 워십을 통해 축복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 2023년 사무연회, 우리 교회 전 성도 기도 제목 4대 비전 선포

대망의 2023년을 앞두고 2022년 마지막 주일 저녁에 배 후 온라인으로 사무연회가 진행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인사 말씀을 낭독함으로 2023년을 맞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이뤄갈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선포하였다.

### 비전 1 강하고 담대하라(수 1:6~8)

여호수아 1장 6~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을 입어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만 하면 항상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과 맞서게 될 때는 두려움 없이 대적해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흑암의 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장수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 비전 2 천국을 침노하자(마 11:12)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죄를 짓도록 미혹하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것을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전 9:25).

그러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뿐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기를 바란다.

### 비전 3 마음 성전(롬 13:10)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한다.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사랑이었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었다. 오직 선과 진리만 행하고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성결한 자녀들을 통해 성전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간 경작 승리의 상징인 대성전 건축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고전 3:16)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도 앞당겨질 것이며, 나아가 대성전 건축의 영적인 기반도 마련될 것이다.

### 비전 4 재창조의 권능 100%(요 14:11~12)

재창조의 권능이란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이다.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이다.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미 죽거나 퇴화한 세포와 조직은 물론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염색체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다. 나아가 육으로 변질한 마음, 악으로 물든 마음도 영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죄로 관영하고 타락한 지금의 세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권능의 종과 일꾼들이 나와 마지막 때의 섭리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하나님의 속성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일서 4:7~8)

세상의 사랑이 대부분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육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썩어지지 않고 변치 않으며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참사랑이요, 악이 없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랑이며 묵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본은 사랑

하나님께서서는 유일한 신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셨지요(출 20:5 ; 수 24:19). 그래서 때로는 악을 쌓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며 진노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창 6:6).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속성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참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된 것, 즉 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 하십니다. 자녀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혹독한 연단을 허락해서라도 어둠을 떠나 빛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서 돌아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공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게 풀리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 경작의 섭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천사와 같은 많은 영적인 존재가 있었지만 마치 로봇과 같이 단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할 뿐, 희로애락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 그를 위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따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와라는 배필도 주셨지요. 아담이 외롭게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헤아려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성을 모르는 상태였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

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지요.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산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고, 불행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겪어 본 일이 없었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고 미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이나 죽음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명심하지 못했고, 결국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간 경작이라는 숨겨진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작을 받으며 미움, 슬픔, 고통, 불행 등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대한 결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마침내 인간 경작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왔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며 근심하시게 되었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대홍수의 재앙을 통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 후세들에게 큰 교훈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br>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다니엘 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르,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함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 다시 인간 경작을 시작하면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늘 깨어 그날의 교훈을 새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책망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 후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3.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후세에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 그를 다듬어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후세에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일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그를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순

종의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심으로 이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마음껏 부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음을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줄 아시면서도 굳이 허락하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정립되도록 역사하셨지요. 아브라함을 인간 경작의 표본으로 세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므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경

작을 통해 진리로 나오는 만큼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감동함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큰 것을 주시고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마음도 느껴지는 것이며, 마침내 응답받았을 때의 감격을 체험한 후에는 마음껏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이 땅에서 경작 받아 나가는 것이며 날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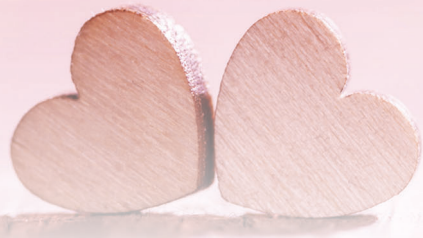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죄인 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차원에 이를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수록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요.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2023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을 소유한 참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마 7:14) 쉽게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1~14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자!

신앙의 목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살아 계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요,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얻게 될 결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해도 개의치 않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목표를 확실히 정한다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개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장애물입니다. 만일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닮고자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벗어 버릴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개하는 마음 하나만 버려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수월합니다. 간사함 등 다른 비진리도 쉽게 버릴 수 있지요.

변개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자체를 빼내 버리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자!

신앙생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목표가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비진리가 발견될 때, 혹은 비진리를 버리기 아까워하니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지만 비진리를 발견하여 버려 나감으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기쁘고 행복하게 비진리를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비진리가 발견되었다면 빨리 버리고, 버릴 것이 많이 발견된다면 더 기뻐해야 합니다. 어차피 비진리는 쓸데없는 것이니 버려야 할 것이고,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신앙생활이 더 쉽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죄를 발견하여 버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며, 주님을 닮아 성결을 이루니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 “척골 변형으로 인한 왼쪽 손목 염증을 치료받았어요”

진은숙 집사 (49세, 3세대 19교구)



기도 받고 왼팔 화상을 치료받은 딸

2022년 11월 19일, 스트레칭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설거지를 하던 중 “앗!” 소리가 날 정도로 왼손에 통증이 심해서 그릇을 놓치고 말았지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척골 변형’이었습니다. 척골이란 팔꿈치에서 팔목까지의 팔뚝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 안쪽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담당 의사는 “뼈가 변형되어 움직일 때마다 부딪쳐서 염증이 생긴 것이니 약을 먹고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왼손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착용해 고정해야 합니다. 뼈가 변형된 상태라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경과를 보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처방해 준 약을 다 먹었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보호대는 계속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니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금영 일을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 신경이 절단돼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2주째 팔에 깁스하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했지요. 이 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눈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밥을 먹든 안 먹든 토할 듯이 배가 메스꺼리고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며,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딸이 세 살 때 정수기의 뜨거운 물에 왼쪽 팔을 화상 입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바른 후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일입니다(오른쪽 상단 사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11월 은사 집회 때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서운해하며, 미워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마침내 11월 25일, 은사 집회로 드려진 금요일예배에 GCN방송을 통해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간절히 기도 받은 뒤 왼쪽 손목을 돌려보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전혀 없었고, 눈 떨림과 속 쓰림, 토할 것처럼 메스꺼웠던 증상도 싹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찬성 봉사하기를 힘써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보너스로 선물도 주셨지요.

저는 3년 전부터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눈에 힘을 주고 생활해야 했고, 이에 따라 두통이 있을 때마다 타이레놀 약을 아침저녁으로 2알씩 하루 4알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는 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 눈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고, 제 눈의 흰자 주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 염증이라며 한 번 망가진 눈은 회복되기 어려우니 지속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증상이 심하게 오니까 책이나 텔레비전 등은 보지 말고 되도록 편안하게 눈을 자주 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은 뒤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던 느낌이 사라져 편안해진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는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왼쪽 손목 통증 치료만을 생각하며 기도 받았는데 이것까지 좋아진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상하고 섬세하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저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응답과 치료로 축복해 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2년 10월, 외출 중 도롯가에 있던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왼쪽 무릎 부위가 따끔하더니 힘이 주어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서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의사는 “나이가 들어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 같고 완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안에서 바퀴 달린 의자에 의지해 생활해야만 했지요.

교구장님의 심방을 통해 혈기와 감정을 버려야 할 것을 깨우치며 걸음으로 남편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 다해 섬기지 못하고 혈기 내고 짜증 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실 약 1년 전부터 남편이 허리를 다쳐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지내고 있었지요.

11월 19일, 구역장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하루에 일곱 번씩 받아보라고 해서 저는 매일 일곱 번씩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 “왼쪽 무릎 인대 통증을 치료받아 혼자서도 잘 걷습니다”

송현순 집사 (80세, 중국 2교구)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조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고 계신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뻐했고 은사 집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1일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랜선 환자 집회’에 참석하며 그날부터 한 끼 금식하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25일, 은사 집회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무릎이 시원해지더니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다리를 움직여보니 통증이 전혀 없었고, 왼쪽 무릎에 힘이 주어져 편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서 걸을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외출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80세의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아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령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61)452-7443, 010-6320-5984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55)353-9192, 010-9382-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1)805-3898, 010-4547-4194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42)841-0091, 010-7195-1099
- 사량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서산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속초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순천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아산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광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여수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